

18세기 행렬반차도 연구

제송희*

I. 머리말

II. 왕실 의례와 18세기 이전의 반차도

1. 반차도의 용도와 종류
2. 제작방법과 표현형식

III. 18세기 왕실 의례의 정비와 반차도의 다양화

1. 영조의 禮制 정비와 새로운 반차도의 시도
2. 정조대 성대한 왕실 의례의 상징, 원형 반차도

IV. 18세기 반차도의 양식적 특징

1. 인간채색법의 일반화
2. 사실적인 화면 구성

V. 맺음말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I. 머리말

숙종 집권 후반기부터 영·정조 연간에 이르는 18세기는 세종대 이래 제2의 왕조 부흥을 이룬 시대이다. 국왕들은 兩亂後 회복된 경제력을 배경으로 정국을 주도하면서 정치적 안정과 왕권 강화를 이루어내었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기본 법전과 예서들이 재정비되고, 방치 혹은 泯滅되었던 의례들이 복원되어 왕실 의례에 禮貌와 위엄이 갖추어졌다. 왕실의 다양한 행사가 회화로 기록되어 궁중회화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인 행렬반차도 역시 18세기 궁중회화의 한 부분을 이룬다.

반차도는 반열의 차례, 즉 班次를 그림이나 글자로 설명해놓은 일종의 圖式이다.¹ 그 중 그림으로 된 반차도는 주로 행렬식으로 표현되며, 행렬의 주인공인 가마류를 중심으로 시위 군사, 의장기와 악대, 陪從 관원 등의 정해진 위치와 차례를 圖繪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반차도는 현전하는 의궤 627종 중 170여 종에 전해지고 있다.² 이들 의궤에 수록된 반차도는 등장인물의 복식과 각종 의장물, 악대 등에 대한 풍부한 시각자료를 제공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 역사, 복식사, 미술사, 음악사 분야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³

미술사 분야에서는 책례와 가례, 어진 관련 의궤 반차도를 중심으로 박정혜, 박은순, 이성미 등 선학의 연구가 있었다.⁴ 이들 연구를 통해 반차도는 복잡한 節目을 시행하는 데서 失儀하지 않기 위해 미리 그려 국왕에게 올린 시각적인 보고서이며, 초기에 육필화(鈎勒彩色法)로 그려지다가 17세기 후반부터 목판화 기법(版畫彩色法)을 도입하여 제작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1 반차도는 '班圖'로 약칭하기도 하며, 한 면에 관원들의 位次를 표시해 놓은 排班圖, 글자로 이루어진 文班次圖, 그림으로 이루어진 반차도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2 김지영, 「조선 후기 儀軌 班次圖의 기초적 연구」, 『한국학보』 118(일지사, 2005), p. 57.

3 유송옥, 『朝鮮王朝 宮中儀軌服飾』(수학사, 1991); 김지영, 앞의 논문, pp. 56~100; 同著, 「조선 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의궤 반차도와 거동 기록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4 박정혜, 「朝鮮時代 冊禮都監儀軌의 繪畫史的 研究」, 『韓國文化』 14(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3), pp. 521~551; 박은순, 「朝鮮時代 王世子冊禮儀軌 班次圖 研究」, 『韓國文化』 14, pp. 553~612; 이성미, 「藏書閣所藏 朝鮮王朝 嘉禮都監儀軌의 美術史的 考察」, 李成美·姜信沆·劉頌玉, 『藏書閣所藏 嘉禮都監儀軌』(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 33~116; 박정혜,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員」, 『미술사연구』 제9호(미술사연구회, 1995), pp. 203~290; 이성미, 「朝鮮王朝 御眞關係 都監儀軌」, 李成美·劉頌玉·姜信沆, 『朝鮮時代 御眞關係 都監儀軌 研究』(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p. 1~136;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일지사, 2000), pp. 41~53; 박은순, 「조선 후기 의궤의 판화도식」, 『국학연구』 제6집(한국국학진흥원, 2005. 6), pp. 249~308; 이성미, 「가례도감의 궤와 미술사」(소와당, 2008); Yi Söng-mi, "Euigwe and the Documentation of Joseon Court Ritual Life", *Archives of Asian Art*, vol. 58(2008), pp. 113~133.

의궤에 수록된 판화도식의 일부로서 18세기 말 이후의 반차도 표현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연구범위가 가례와 책례, 어진 봉안에 한정되어 의궤 반차도의 2/3를 차지하는 흥례(국상과 부묘)와 尊號 등의 의례를 포괄하지 못한 데다 특정 시기에 치중하여 반차도의 제작방법과 표현형식의 변화를 제대로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18세기는 국왕 주도하에 왕실 의례의 정비와 의궤를 통한 정리작업이 활발히 진행된 시기이다. 또한 통치권자인 왕이 다양한 의식에서 반차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반차도들이 속속 등장하고, 표현양식 면에서도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 시기 반차도를 중심으로 왕실 의례와 반차도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의궤 반차도에 한정되어 있던 반차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넓히고 18세기 궁중회화의 일면을 규명하는 작업이 될 뿐 아니라 최근 일고 있는 의궤에 대한 각계의 관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II. 왕실 의례와 18세기 이전의 반차도

1. 반차도의 용도와 종류

조선왕실에서는 일찍부터 國喪時 발인 행렬의 반차를 중시하였다.⁵ 1470년 1월 22일 성종이 예종 국장시의 발인반차도를 예람했다는 실록 기사가 조선 前期 반차도의 존재를 알려준다.⁶ 당시의 발인반차도는 발인의식 후 殯殿에서 산릉으로 향하는 大輿 행렬을 그린 것으로, 『세종실록오례의』에 규정된 「발인반차」의 내용을 도회한 것으로 추정된다.⁷ 발인반차도가 그려진 것은, 왕실 의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데다 先王의 국장을 치르면서 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흥례 절차를 精緻하게 정비한 결과라 생각된다.⁸ 이로써 조선 전기에 한문으로 된 복잡한 「發朝班次儀」를 반차도로 시각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세종실록』 권17 1422년(세종 4) 8월 22일(丙午), 8월 29일(癸丑), 『단종실록』 권2 1452년(단종 즉위) 8월 28일(戊子).

6 『성종실록』 권2 1470년(성종 1) 1월 22일(辛丑).

7 『오례의』 II—세종장헌대왕실록』 21(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3), pp. 280~285. 흥례와 관련하여 「發朝班次儀」 외에 「返虞班次」가 있고 이 의주들은 『國朝五禮儀』에도 수록되었다.

8 이범직, 『朝鮮時代 禮學研究』(국학자료원, 2004), p. 71.

성종이 예람한 발인반차도는 2월 3일의 발인이 있기 10일쯤 전에 입계된 반차도였다.⁹ 당시 기록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17세기 의궤를 통해 의식 전에 제작되는 반차도의 내용과 용도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다. 1645년(인조 23) 昭顯世子 禮葬時에 예장도감 一房에서 5월 27일 인조에게 아뢰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인반차도를 입계하려는데 『국조오례의』와 예조의 儀註를 講定하여 2건을 그러서 하나는 입계하고 다른 하나는 도감에 남겨두어 膳錄에 실거니와 이번에는 일에 숙달한 화원 1인을 두어 睿入한 종이에 채색하여 마련하도록 거행하려는데 어떠하오지요?¹⁰

즉 발인반차도는 의식 전에 『국조오례의』 「발인반차의」와 예조에서 만든 「의주」를 토대로 제작되며, 2건을 그러서 한 건은 국왕에게 올리고 다른 한 건은 도감에 두었다가 등록(의궤)에 실었던 것이다. 국상시 예조에서는 발인의식 전반에 관한 절차(「의주」)를 실록과 이전의 등록을 두루 相考하여 마련하였다.¹¹ 동시에 의식에 동원되는 집서관들의 인원과 품계를 單子로 마련한 후 국왕의 재가를 받고 습의와 실제 의식에 미리 대령시키도록 해당 부서에 통고하였다.¹² 도감에서는 이를 토대로 발인 행렬을 반차도로 제작한 것이다. 2건 중 한 건을 도감에 두는 이유는 발인 행렬의 반차에 관한 일이 도감의 업무였기 때문이다.¹³

도감에 둔 반차도는 관련 부서에 반포되어 지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674년 효종비 인선왕후 국장 때 국장도감에서 빈전도감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반차도를 고쳐서 마련하여 正書하여 하나는 입계하고 하나는 귀 도감에 보내니 귀 도감 소속各司와 內班院(내시)에게 이것을 미리 반포하여 알도록 명하여 임시로 紛踏하여 차례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 하여 담당자에게 차례를 숙지시키라 요청하고 있다.¹⁴ 이는 반차도가 반차를 정돈시키는 지침으로 실무에 활용되는 기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의식 전에 제작되어 국왕의 재가

⁹ 『성종실록』 권3 1470년(성종 1) 2월 3일(壬子).

¹⁰ 『昭顯世子禮葬時監儀軌』(奎13918), pp. 184~185. “發靱班次圖入啓 而五禮儀及禮曹儀註講定 圖畫二件後 一則入啓 一則留都監是如在載膳錄爲有置 今番乙良 置事知畫員一人 推捉睿入紙地及彩色磨鍊舉行何如 手決內依”

¹¹ 위의 의궤, p. 90. “禮曹爲知音事 節啓下教曹單子內 今此王世子喪發引返處時 應行諸事 實錄及膳錄相考磨鍊開坐爲白去乎 令各該司依此舉行何如”

¹² 위의 의궤, pp. 64~67. “禮曹爲知音事 節啓下教曹單子 今此王世子喪賜諡發引返處時 應行諸執事人員 實錄及膳錄參商磨鍊開坐爲白去乎 令吏兵曹內侍府 預差并以預爲差定 習儀時並參爲白乎矣 此外都監膳錄付應行執事人員 乙良 置亦令都監分付 該司隨即差定或推移舉行 俾無臨時顛倒之患何如 啓依所啓施行事 啓下”

¹³ 당시 예조의 應行諸事에는 “발인시 반차는 도감으로 하여금 실록에 의거하여 마련하여 거행하도록 합니다(發引時班次乙良 令都監依實錄磨鍊舉行為白齊)”라고 하여 도감 소관임을 밝히고 있다. 위의 의궤, p. 97.

및 실무용으로 쓰인 내입 반차도와, 기록적 용도로 의궤에 수록된 의궤 반차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¹⁵

현존하는 17세기 이후의 의궤에는 발인반차도 외에 祔廟, 遷陵, 가례, 책례 관련 반차도가 수록되어 있어 반차도 제작 관행이 다른 의례에도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반차도의 내용은 의례마다 달랐다. 발인반차도는 빈전에 모셔져 있던 魂帛函과 재궁을 魂帛車와 대여에 봉안하여 산릉에 이르는 행렬을 그렸는데 각각 吉儀仗과 凶儀仗을 배설하여 행렬이 길다.¹⁶ 길의장 행렬은 산릉에서 재궁을 묻고 立主奠을 치른 후 虞主(神主)와 함께 혼전으로 모셔오는 諡冊·諡寶류로 구성되며 흥의장 행렬은 재궁과 함께 부장하거나 의식 후 불태우는 물품들로 이루어졌다. 부모 관련 반차도는 大祥 후 혼전에 모셔져 있던 신주를 神輦에 봉안하여 종묘에 이르는 행렬을 그렸다. 그리고 가례 관련 반차도는 國婚時 왕비(세자빈)가 親迎禮나 同牢宴을 치르러 별궁을 나서서 대궐(태평관)로 가는 행렬로 이루어졌다. 책례 관련 반차도는 책례에 필요한 備物典冊인 冊·印, 왕세자의장과 가마(輦)를 제작하여 대궐로 들어오는 행렬이 그려졌다. 각 행렬에는 그 위상에 맞는 侍衛와 儀仗을 배설하여 威儀를 표하였는데 세부 내용은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2. 제작방법과 표현형식

이 시기 내입 반차도 실물은 확인되지 않지만, 도감 일방에서 반차도 제작을 위해 요청한 物目을 통해 그에 대해 추정해볼 수 있다. 반차도 2건 중 어담용은 깨끗하고 흰 搗鍊紙에, 도감용(草圖)은 楮注紙에 그려서 종이에 차등을 두었다.¹⁷ 도련지는 도침을 가해 종이의 밀도를 높인 고급 종이였다.¹⁸ 또한 착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콩즙으로 泡水한 후 제작하였다. 이들 물목을 요청하고 제작한 반차도를 진상한 곳이 일방이므로 일방 소속 화원들이 반차도를 제작한

¹⁴ 『仁宣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奎13535), pp. 356~357. “班次圖改磨鍊正書 一邊入啓是遣 一邊移送於貴都監爲去乎 凡貴都監所屬各司及內班院良中 以此預爲頒布知委 俾無臨時紛踏 失次之患是旣”

¹⁵ 반차도가 애당초 의궤 수록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박정혜,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員』, pp. 210~211.

¹⁶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國朝五禮儀』3(법제처, 1982), pp. 101~108, 123~1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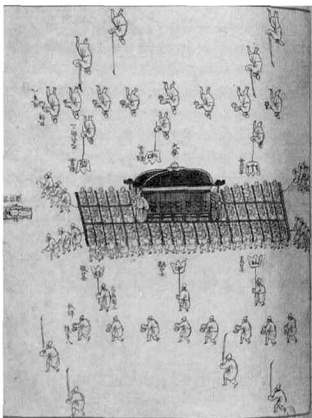
¹⁷ 『仁祖國葬都監儀軌』(奎13521), p. 198. “取考戊申謄錄 則發引班次圖 御覽所用 潔白搗鍊紙十張 草圖次 楮注紙十張 太染太五升 畫筆六柄 各種采色等上下事 各該司捧甘是如爲有在果 采色及太染乙良 自本房推移用之計料 而其他潔白搗鍊紙十張 楮注紙十張 畫筆四柄券上下進排事 捧甘如何 手決內依”

¹⁸ 손계영, 「조선시대 古文書에 사용된 종이 분석」, 『기록관리학회지』 제5권 제1호(한국기록관리학회, 2005. 6), pp. 9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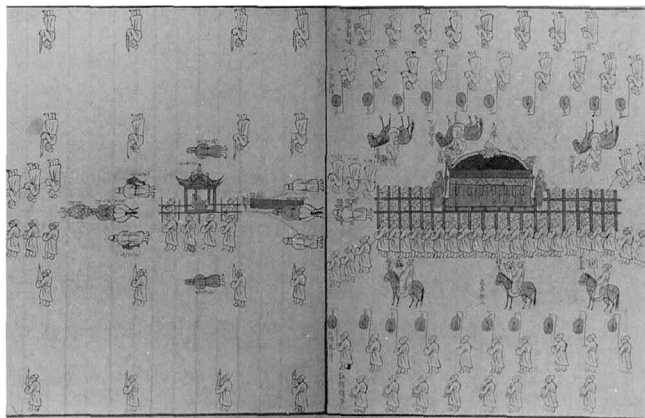
것도 알 수 있다.¹⁹ 한편 의례가 끝난 후 의궤를 편찬할 때는 따로 화원 1인이 배치되어 어람용 의궤의 印札線을 긋는 작업과 반차도 제작을 맡았다.²⁰ 화원은 내입 반차도를 토대로 의궤 건수 만큼 반차도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궤의 반차도도 어람용은 草注紙에, 분상용은 저주 지에 제작하여 차등을 두었다.²¹ 초주지 역시 저주지보다 가격이 4배 정도 비싼 고급 종이였다.²²

이 시기 반차도의 표현 경향은 의궤 반차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649년 인조 국장시의 〈발인반차도〉에서 보듯이 17세기 중엽까지는 速筆로 자유롭게 필사함에 따라 개별 화원의 필력에 좌우되는 경향이 많았다(도 1). 하지만 1659년 효종 국장 때는 像들을 정비하고 보다 정연한 구성을 갖추었다. 그 결과, 대체로 左向하여 나아가는 중앙 열과 중앙 열을 향해 顛倒된 바깥 열을 한 화면에 複合視點으로 묘사하는 삼단구도가 정착하였다(도 2). 행렬의 중심을 이루는 중앙 열의 가마는 側面觀의 단면으로 묘사하고 ‘井’자 형 가마채에 가마꾼을 수직으로 층층이 포개 올리는 공간구성법을 취하여 이차원적 평면도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사람과 말들을 動勢 없이 단순화함에 따라 정지된 화면처럼 표현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과 말을 몇 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여 印刻으로 새겨 찍는



도 1 『인조국장도감의궤』 〈발인반차도〉 25면 대어, 1649, 규장각



도 2 『효종국장도감의궤』 〈발인반차도〉 20~21면 향정자와 대어 행렬, 1659, 규장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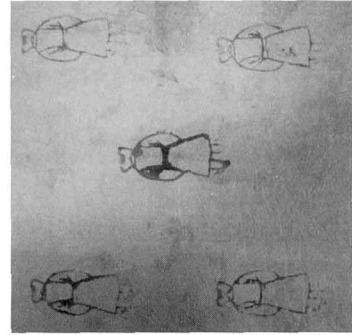
19 『孝宗國葬都監儀軌』上(奎13527-1), p. 318. “御覽班次圖 今將進上矣 所裹白綿紬三幅付袱一件 令該監進排事 捧甘何如 堂上手決內依”

20 박정혜, 앞의 논문, p. 212.

21 『孝宗國葬都監儀軌』下(奎13527-2), p. 371. “御覽瞻錄 草注紙九卷六張半 分上瞻錄 楮注紙三十四卷五張 印札朱紅五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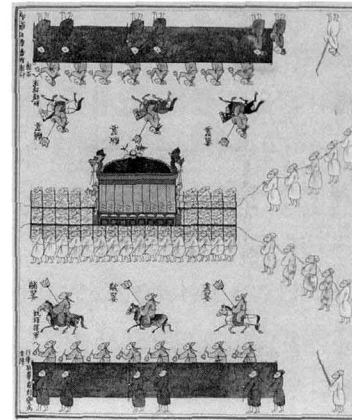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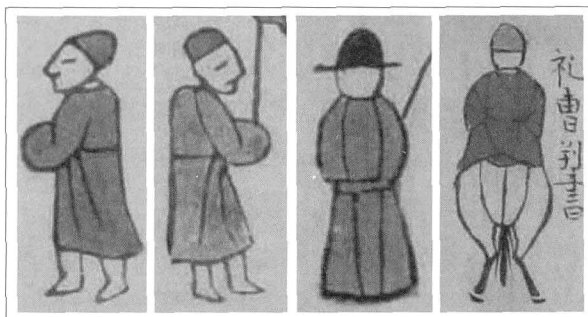
22 손계영, 앞의 논문, pp. 99~100.

기법이 도입되었다. 이 기법은 1802년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의 破紙에서 보듯이 나무에 도장처럼 양각상을 새겨서 찍고 모자와 지물 등을 그려서 상을 완성한 후 채색을 가하는 방식으로 印刷彩色法이라 할 수 있다(도 3).²³ 1661년 『효종부묘도감의궤』 〈반차도〉에서부터 이 기법을 쓴 것이 확인된다.²⁴ 당시 의궤에는 네 종류로 유형화한 인각상을 썼는데, 부모 관련 의궤에 이 기법이 먼저 도입된 것은 제작량 때문이라 생각된다(표 1). 부모시에는 보통 9건의 의궤를 제작하였으므로 다른 의궤의 반차도에 비해 표현해야 하는 상의 수가 훨씬 많았던 것이다.²⁵ 즉 인각채색법은 상을 표준화함으로써 자유로운 필사에서 보이는 회원간의 필력의 차이를 극복하여 반차도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제작량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어람용 의궤의 반차도는 1688년 장렬왕후 〈발인반차도〉에서 보듯이 유지 초본을 활용하여 필사하고 꼼꼼하게 설채하여 완성하는 경우가 많았다(도 4).



도 3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 13면 뒤 破紙, 1802, 장서각

표 1 『효종부묘도감의궤』 〈반차도〉의 4종의 인각상, 1661, 규장각



도 4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 〈발인반차도〉 21면 대여, 1688, 외규장각

²³ 박은순은 이 기법을 판화채색법이라 하였지만(박은순, 「조선 후기 의궤의 판화도식」, p. 264) 엄밀히 말해 版에 찍는 版畫는 아니다. 여기서는 의궤에 나오는 “內入及草班次圖起書時 刻本次 杻檀木”이란 표현에 의거하여 印刷이란 용어를 쓰고자 한다. 刻本用 나무와 관련한 의궤 기록은 이 글 주 64) 참조.

²⁴ 『孝宗祔廟都監儀軌』(奎13530), pp. 331~348.

²⁵ 『孝宗祔廟都監儀軌』 〈반차도〉에 등장하는 像은 측면 보행상 326명, 후면 보행상 231명, 후면 기마상 61기, 측면 기마상이 18기로, 9건을 제작할 경우 각각 2934명, 2079명, 549기, 162기를 필사해야 했다.

Ⅲ. 18세기 왕실 의례의 정비와 반차도의 다양화

현재 알려진 18세기의 의례 반차도는 모두 49종으로 국상·천릉·부모 등 흉례 관련 반차도가 20종, 가례와 책례 관련 반차도가 12종, 왕실 어른에 대한 존호·존숭·추송과 관련한 의례가 9종, 기타 의례와 관련한 반차도가 8종이다.²⁶ 기존에 없던 의례 영역에서 새로 제작되는 반차도가 17종, 전체 35%에 이를 정도로 반차도 제작이 다양화한다. 특히 국왕의 거동 행렬이 등장하는 것이 주목된다.

1. 영조의 禮制 정비와 새로운 반차도의 시도

1) 노부제도 복구와 <의장도>

영조는 1724년 즉위 후 바로 경종의 발인 행렬을 따라 산릉까지 친림하겠다는 국장도감에 거동 절차와 반차도를 요청하였지만 반차도는 그려지지 못했다.²⁷ 왕의 거동을 반차도로 그린 前例가 없었고 『국조오례의』의 親臨 절차를 따라야 하나 소략한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국왕의 궐박 거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前代의 상황과 함께 『국조오례의』 『鹵簿』 규정이 현실적이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노부란 殿庭의 조회나 궐박 행행시에 군주의 존엄을 드러내기 위해 갖추는 의장과 시위(儀衛)를 총칭하는 것이었는데 국초에 성대하게 갖춘 제도가 양란후 복구되지 못한 상황도 있었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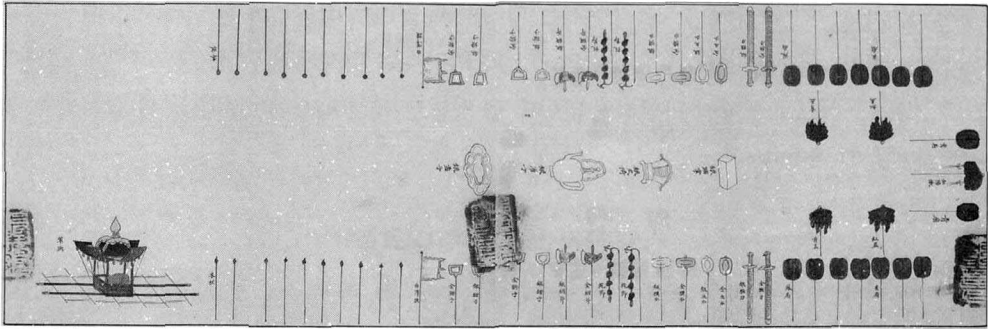
영조는 1744년(영조 20) 10월에 자신의 耆老所 입소와 대왕대비 仁元王后의 57세 생일을 기념하여 진연을 베풀면서 처음으로 『국조오례의』에 의거하여 대가의장을 복원하여 전정에 세웠다.²⁹ 그리고 減滅되었던 법가의장을 복원하고 대가의장은 종묘·사직 행행시, 법가의장은 문묘·영희전 행행시, 소가의장은 성내외 행행시에 쓰도록 『국조속오례의』(1744) 「노부」에 명문화하였다. 또한 성내외 동가나 인정전에서의 조하·조참·진연, 친영례시의 반차를 배반도로 정리하

²⁶ 『규장각 소장 儀軌 종합목록』(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pp. 45~71 참조.

²⁷ 『景宗國葬都監儀軌』 上(奎13566-1), p. 443. “今此發引時班次圖 依庚子年例 纔已出草 而大駕親臨節次 則只憑五禮儀所載 則不無疏略者 … 山陵與路祭所 遠近雖殊 動駕則一 而曾不一體起畫者 似由於京外舉動時 元無班次圖啓下之例是乎所 此不可不更加稟定奉行 參量指揮何如 稟 總護使手決內啓稟”

²⁸ 鄭道傳, 『三峰集』 卷之十四 朝鮮經國典 下 工典 鹵簿; 『국역 삼봉집』 Ⅱ (민족문화추진회, 1977), p. 321.

²⁹ 『春官通考』 卷50; 『春官通考』 中(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7), p. 466.



도 5 『인원왕후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 〈의장도〉 1~4면, 1752, 규장각

여 수록하였다. 미비하였던 왕세손과 왕세손빈의 의장은 『속오례의보』(1751)에서 보완하였다.

영조는 정비된 노부제도가 실제 의식에서 제대로 배치되는지 직접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1747년 이후 인원왕후에게 존호의 책·보를 올리면서 제작한 4종의 의궤에 등장하는 〈儀仗圖〉가 그 예이다(도 5).³⁰ 인물 없이 중앙 열에 紅陽纒과 靑扇·紅蓋·靑蓋 각 1쌍, 銀踏掌 등 의장물 4개가 놓이고, 좌우 열에 雀扇에서 白澤旗까지 의장기 55병, 朱杖 20개가 늘어서 있으며 맨 끝에 輦輿가 놓여 있다. 배열 순서는 다르지만 『국조오례의』에 규정된 왕비 의장이다.³¹ 이는 “內習儀 때의 의장도”를 그려 들이라는 영조의 특별 하교로 제작된 것이다.³² 존호를 올리는 의식은 국왕이 使者를 통해 전한 冊·寶를 女官이 받아 通明殿에서 거행하는 내전 행사였던 만큼 의식을 여관이 집행하고 전정의 의장도 여성들이 들었다.³³ 즉 내전 전정에 배설하는 왕비 의장을 점검하기 위해 그리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반차도의 의장기 표현에 보이는 변화는 노부제도의 복원과 시행을 위해 영조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기존의 반차도에서는 의장기의 대·중·소 크기에 따라 홍문대기나 황룡기 같은 대기는 3인의 의장수가, 백택기 같은 중기는 2인의 의장수가 들고 있어서 화면을 뻥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³⁴ 그런데 1748년 『영정모사도감의궤』와 1759년 『영조정성왕후

30 1747년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奎13288), 1751년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奎13290), 1752년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奎13292), 1754년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奎13294) 참조.

31 법제처, 앞의 책 4, pp. 203~205 참조.

32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p. 66. “尊號時儀仗圖爲之 而至今不爲圖入 卽爲圖入”; p. 397. “今二月十五日 內習儀時 儀仗圖 圖入事 傳教時時…”

33 법제처, 앞의 책 5, pp. 124~127.

34 『국조오례의』 「노부」에는 大旗는 5인, 中旗는 3인, 小旗는 2인이 들게 되어 있다. 법제처, 앞의 책 4, p. 192.

가례도감의궤』〈친영거동반차도〉 등에서는 대·중·소 크기에 상관없이 한 명의 의장수가 깃발을 드는 것으로 바뀌었다(표 2). 의장기의 크기와 의장수의 숫자에 관한 제도는 바뀌지 않았으므로, 이는 도식으로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의장 배설에 대한 체계와 훈련이 갖추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표 2 대기·중기·소기의 표현 변화

					
<p>『경종국장도감의궤』〈발인반차도〉, 1725, 규장각</p>			<p>『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친영거동반차도〉, 1759, 규장각</p>		

2) 예전 정비와 새로운 반차도의 시도

영조는 의식 전에 하던 세 번의 습의를 반차도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의식 당일에도 긴밀히 지니 자신이 요청할 때는 언제든지 대령하도록 하였다.³⁵ 이를 어긴 관원들을 重推하게 하여 반차도에 의거한 행렬 정돈을 철저히 단속하였다. 그리고 중요 의례에서는 반차도의 제작 건수를 늘렸다. 1757년 인원왕후의 국장시에 어람용 반차도 2건, 도감용 반차도 4건이 제작되었고, 1759년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시에는 어람용 3건, 도감용 2~3건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³⁶ 인원왕후의 국장은 영조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에 대한 배려로서, 영조 가례는 예전에 수록된 『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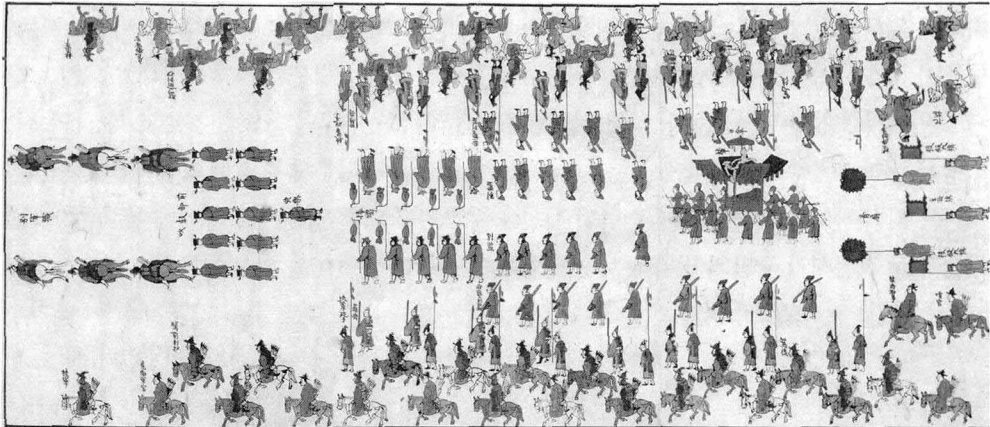
³⁵ 『승정원일기』 890책 1739년(영조 15) 5월 6일(辛亥). “司諫南泰良啓曰 … 昨以班次圖之不卽進入 至有都廳重推之命 臣於是竊不勝皇悚之至 夫班次正本 旣已入啓 三次習儀之日 又已按圖行事 至於正日 則固宜緊帶草本 聽候宣索 而動駕清道之際 官與吏相失致 不得登時進御 臣身帶都廳 顧安免不能檢察之失哉”

³⁶ 『仁元王后國葬都監儀軌』 上(奎13557), p. 347, 349. “今此發朝班次圖 御覽一件 睿覽一件 合二件 所入物力 … 總護使三提調班次圖四件 起畫 所入”; 박소동 역, 『국역 가례도감의궤』(민족문화추진회, 1997), pp. 105~106의 物目에 의거하여 추정.

妃親迎儀」를 예법대로 집행하려는 의도에서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759년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시에 제작된 반차도는 왕의 친영 행렬이 새로 등장하여 이후 왕실 가례 반차도의 구성을 뒤바꾸는 규례가 되었다.³⁷ 왕의 친영은 공자의 ‘冕而親迎’을 실천하는 것으로 國初부터 중시되어 중종대 이래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다.³⁸ 왕의 친영 절차는 영조대 예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국조속오례의』에 「납비친영의」로 명문화되었고 친영례시 왕비와 왕, 각 집사관의 위차도 <納妃親迎之圖>로 수록되었다.³⁹ 영조는 정비된 절차를 몸소 실천하여 왕실 의례의 권위를 세우고자 친영 행렬을 반차도로 제작케 한 것으로 보인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의 <친영거동반차도>에서 왕의 행렬에는 대가의장을 편성하여 국가 의례 중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대열 전체의 앞뒤 호위는 훈련도감에서 맡고 왕의輦 전후좌우에는 禁軍과 挾輦軍, 別監과 武藝別監 등이 각각 6겹씩 근접 호위를 하고 있어 국왕에 대한 엄중한 호위 상황을 보여준다(도 6). 이렇듯 대규모 의장과 엄중한 호위를 갖춘 당당한 왕의 거동 행렬은 前代에 없던 것으로, 왕실 의례의 엄숙함과 함께 의례의 중심을 이루는 왕의 존재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 외에 영조는 1748년 숙종의 어진을 모사하여 永禧殿에 봉안하러 갈 때 자신이 隨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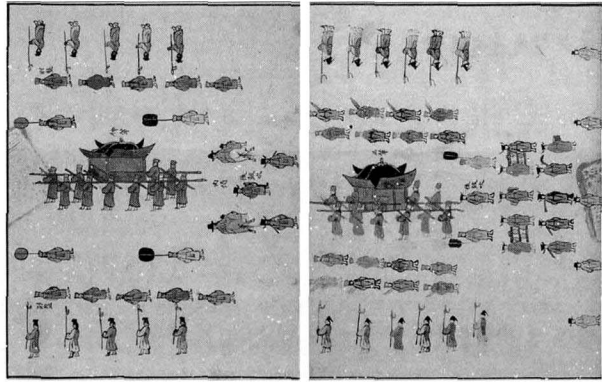
도 6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친영거동반차도> 19~21면, 1759, 규장각

37 반차도에 대한 사항은 이성미, 앞의 책, pp. 95~157 참조.

38 김문식, 「조선 왕실의 친영례 연구」, 권오영 외, 『조선 왕실의 가례』1(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p. 115.

39 법제처, 앞의 책 5, pp. 156~159, 370.

는 행렬을 반차도로 그리도록 하고 반차에 대해 직접 하교하였다.⁴⁰ 또한 의궤에도 수록하라는 전교를 내렸다.⁴¹ 그 결과 『숙종영정모사도감의궤』 〈반차도〉는 어진 봉안 행렬의 첫 예이자 왕의 행렬의 첫 예가 되었다(도 7). 행렬은 어진을 봉안한 신련 뒤를 영조의 가마가 따르는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신련과 영조의 행렬에는 시위군사와 의장이 각각 배치



도 7 『영정모사도감의궤』 〈반차도〉 신련(7면)과 영조의 가마(14면), 1748, 규장각

되어 있다. 신련보다 왕의 가마 주위에 더 많은 시위대가 배치되어 실재하는 국왕에 대한 호위를 더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반차도〉는 영희전에 친히 제향을 올리는 등 나라의 眞殿으로서 그 위상을 격상시켜 가는 과정에서 제작되었다.⁴² 즉 『국조속오례의』를 통해 정비된 거동 절차를 토대로 어진 수가 행렬을 그리게 함으로써 어진의 중요성과 자신의 정책을 동시에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는 1771년(영조 47) 전주이씨 시조司空公(李翰)의 神位版을 조성하여 전주肇慶廟에 봉안하러 보낼 때에도 수가 행렬을 그리게 하였다.⁴³

위에서 보았듯이 영조는 노부제도를 복구하여 국왕과 왕실의 儀衛를 갖추고 각종 의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등장하는 반차도들을 새로이 제작케 하여 직접 점검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의식 자체의 엄숙한 집행과 함께 자신을 부각하고 의례 말단에서 이루어지는 행렬의 반차까지 잘 정돈시켜 국왕의 권위와 왕실 의식의 예모를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40 『肅宗景仰模寫都監儀軌』(奎13997), p. 42. “戊辰 正月 二十八日 傳曰 景仰奉安永禮殿時 子則當隨駕 先廂在景仰先射隊之後 先行神輦之前 次神輦儀仗 次神輦侍衛 次神輦 次二都監堂郎 次小駕儀仗 次侍衛 次正輦 次承史百官 次後廂 次神輦後廂 舉行”; p. 243. “景仰奉安于永禮殿教是時 班次圖畫入事 傳教教是時 所入唐朱紅三堯…”

41 위의 의궤, p. 183. “戊辰 五月初五日 右甘結 今番模寫教是時 儀軌中班次圖起畫事 榻前下教教是…”

42 김지영, 『英祖代 眞殿政策과 『肅宗景仰模寫都監儀軌』』,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2(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pp. 544~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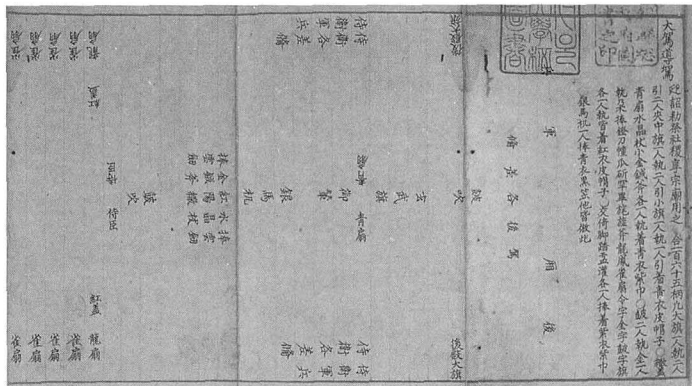
43 『國朝始祖位版造成都監儀軌』(奎14250) 참조.

2. 정조대 성대한 왕실 의례의 상징, 원행 반차도

1) 반차 준비를 위한 체계적 조치

정조는 왕실 의식에서 반차 준비를 위한 방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갖추었다. 즉위 후 조 정에서 관리들이 朝賀할 때 반차를 엄수하도록 〈朝賀圖式〉을 판각하여 반포하였고 병조판서를 鹵簿使로 임명하여 의장과 시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⁴⁴ 또한 왕과 왕비 등 왕실 성원들의 의장을 문반차도로 나열한 《의장반차도》를 만들어 실제 의식에 활용하도록 하였다(도 8).⁴⁵ 의장을 담당하는 관원들은 이 반차도의 차례를 외워서 숙지해야만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⁴⁶ 왕의 거동 중 빈도가 높은 사직단, 경모궁, 산릉 동가시의 반차도 따로 정리하였다.⁴⁷ 이렇듯 정조는 왕실 내외 의식에서 반차를 엄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영조가 중요 의례에서 늘려서 제작하던 도감용 반차도를 分兒 班次圖란 이름으로 정식화하였다. 1789년 10월 생부 장헌세자의 원소를 수원읍 花山에 새로 조성하여 옮길 때 어람용 반차도 1건과 함께 분아 반차도 11



도 8 《의장반차도》 중 대가도가 부분, 1787년 이후, 규장각

44 『승정원일기』 1417책 1778년(정조 2) 4월 7일(丙申); 『정조실록』 권5 1778년(정조 2) 4월 12일(辛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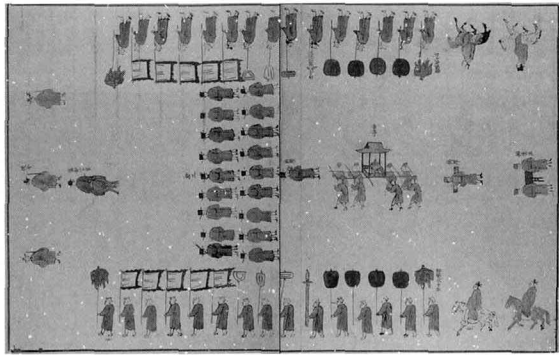
45 《儀仗班次圖》(奎貴9944) 참조.

46 『승정원일기』 1374책 1776년(영조 52) 1월 21일(癸巳). “(兵曹判書徐)命善曰 儀仗排列之規 既承日前下令 故今方申飭部將 使之定軍人 依班次圖 常事調習 俾不至臨時錯雜 … 今曰 … (儀仗)陳列之錯雜 專由部將之生疎 南行部將 旣是句當之人 則其所勤勞 宜有懲勸 此後褒貶 兵判受班次圖之講 觀其生熟 以爲等第之高下事 定式施行可也”

47 『春官通考』 卷67; 『春官通考』 下, pp. 45~49.

건을 제작하도록 하였다.⁴⁸ 分兒란 分下와 같은 뜻으로, 담당 관원들에게 나눠주는 실무용 지침이었다. 분아 반차도 제작에 쓰인 물목을 보면 인각상에 片臘脂·靑花·同黃·眞粉·石碌 등 기본 안료만 써서 어람용과는 차등을 두어 제작하였지만 반차도의 구성은 동일하였을 것이다.⁴⁹ 1789년 10월 5일 영우원에서 발인할 때 노부사가 “그림을 살펴 (행렬을) 진열시켰다(按圖陳列)”고 한 실록의 기사는 반차도가 현장에서 지침으로 활용된 상황을 알려준다.⁵⁰

그 외 왕실의 상징물과 儀物을 陪進할 때 細儀仗과 鼓吹로 前導하게 하는 행렬을 일상적으로 갖추었다. 세(의)장은 원래 국가의 大小 제사에 쓸 향을 전하는 使臣(傳香使)의 路次에 쓰는 의장이었다.⁵¹ 왕실에서는 전향사의 행렬만이 아니고 존호의 책·보, 책례시의 교명과 책·인, 어첩 등을 봉안할 때에도 세의장과 고취로 전도하게 하여 예모를 갖추었다.⁵² 영조대인 1759년 『정조왕세손책례도감의궤』〈반차도〉에 의장기 30명으로 이루어진 세의장 행렬이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전반까지는 그 개수나 내역이 명확하지 않았던 듯하다(도 9). 세의장은 18세기 중반 영조의 노부제도 정비와 함께 정비된 것으로 보이며 정조대에는 일상 행렬에 쓰는 行用 세의장과 영정 봉안시에 쓰는 영정 세의장으로 세분되어 있었다.⁵³ 또한 존호 관련 의궤 반차도와 『國朝寶鑑』이나 『宮園儀』 같은 서책을 내입 및 봉안하는 반차도에서도 이 행



도 9 『정조왕세손책례도감의궤』〈반차도〉 1~2면의 세의장과 고취대, 1759, 규장각

⁴⁸ 『莊獻世子永祐園遷奉都監儀軌』4(奎13624-4), pp. 45~46, “本房所掌 御覽班次圖一件所入 搗鍊紙八張 草圖次楮注紙一卷三張 太染太一升 二靑一錢八分 三靑二錢 荷葉一錢 同黃一錢 片臘紙半片 眞粉二錢 靑花一錢 石碌五分 石紫黃一錢 畫筆一柄 黃筆一柄 眞墨半丁 阿膠五錢 出本次油紙二張 分兒班次圖十一件所入 出本白休紙半斤 自作板一立 白礮三兩八錢 阿膠七兩 唐朱紅一兩 靑花二兩 片臘脂一片 黃丹一兩 楮注紙三卷十七張 黃筆二柄 眞墨二丁 膠末六合 眞粉二錢 石碌一錢五分 同黃一錢五分 令計士磨鍊爲去乎 假下實入次捧甘取用何如 堂上手決內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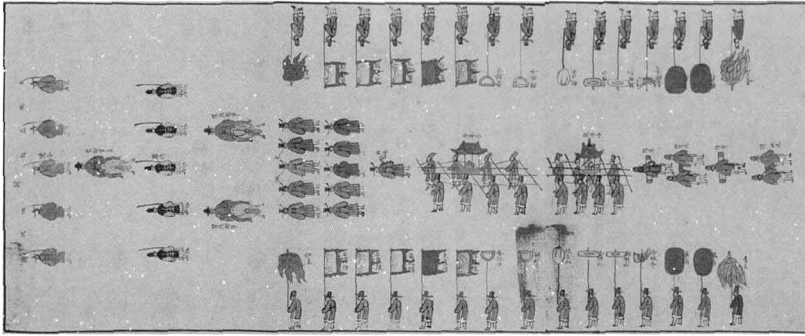
⁴⁹ 같은 곳.

⁵⁰ 『정조실록』 권28 1789년(정조 13) 10월 5일(丁巳).

⁵¹ 법제처, 앞의 책 4, p. 200.

⁵² 『선조실록』 권179 1604년(선조 37) 윤9월 24일(辛丑). “禮曹啓曰 今次上尊號權停例時 節目磨鍊 一 大殿中宮殿進冊寶時 自南別宮至時御所 冊寶所盛彩舉 細仗前導 鼓吹 引路諸事 …”

⁵³ 《儀仗班次圖》(奎貴9944) 참조.



도 10 『영조정성왕후정순왕후장헌세자혜빈존호도감의궤』〈自都監詣闕班次圖〉 1~3면, 1784, 규장각

렬이 일상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도 10).⁵⁴ 이는 세의장과 고취의 행렬을 통해 예모를 갖춘 왕실 의식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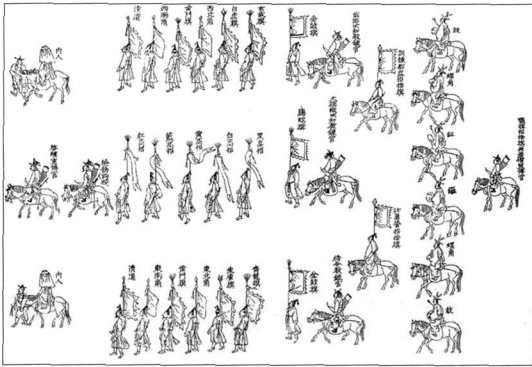
2) 원행 반차도

위에서 본 영조와 정조의 노력들은 왕실 의례의 면모를 일신시켰고 왕실의 성대한 행사 장면이 기록화로 제작되면서 반차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영조대에 수가 및 친영 행렬로 일부 등장하던 왕의 행렬이 정조의 화성 園幸時에 독립적인 거동 행렬로 제작된 것이다. 정조의 거동 중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능행이었고 그 중에서도 생부 장헌세자의 원소 원행에 부여한 의미는 남달랐다.⁵⁵ 그는 1789년 현릉원 조성 이후 매년 1~2월에 한 차례씩 원행하면서 그 절차를 『園幸定例』로 정식화하고 배종 관원과 군사들의 〈班次式〉을 정비하였다.⁵⁶ 이러한 절차들은 1795년 어머니 혜경궁을 모시고 원행하면서 〈반차도〉(『원행을묘정리의궤』 卷首 수록, 이하 〈정리의궤 반차도〉로 약칭)로 시각화되었다. 당시 원행은 장헌세자와 혜경궁의 화갑 및 정조의 재위 20주년 기념 등 왕실의 겹경사를 백성과 함께 공유하려는 정조의 의지를 반영하여 준비되었다.

⁵⁴ 『貞純王后莊獻世子惠嬪尊號都監儀軌』(1783, 奎13311), 『國朝寶鑑監印廳儀軌』(1783, 奎14189), 『英祖貞聖王后貞純王后莊獻世子惠嬪尊號都監儀軌』(1784, 奎13297), 『宮園儀』(1785, 장서각, K2-2433), 『貞純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1787, 奎13314), 『貞純王后莊獻世子惠嬪尊號都監儀軌』(1795, 奎13316) 참조.

⁵⁵ 김지영, 「조선 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 p. 110의 〈표 26〉 참조.

⁵⁶ 『園幸定例』(奎12209) 〈陪從百官軍兵班次式〉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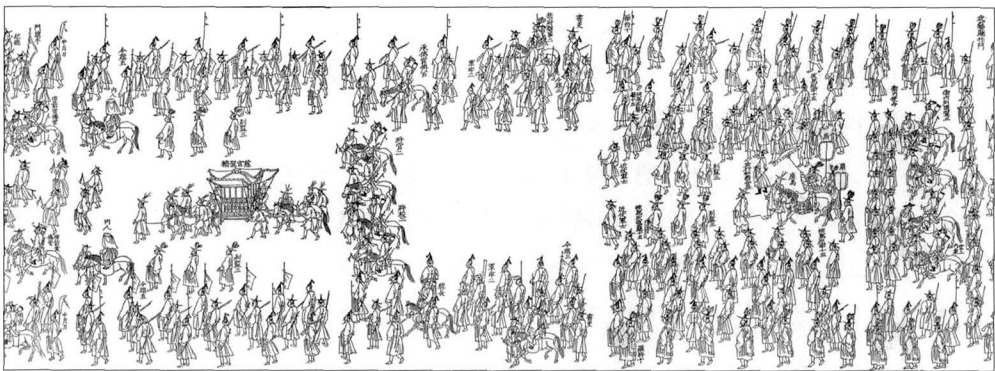


도 11 <정리의궤 반차도> 24~25면, 1797, 규장각

것도 통수권자로서 왕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도 11).⁵⁸ 화성으로의 원행이었던 만큼 장용영 소속 吹鼓手를 내취대로 편성하고 장용대장이 어가 뒤에서 배종하는 등 친위부대 장용영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다.

경기감사와 원행을 총괄한 整理使가 전체 행렬 앞에서 도가하고 세의장이 배설되었으며, 진찬의 주인공인 혜경궁의 가교가 御駕 앞에 위치하고 외빈들의 행렬이 뒤에서 수가하였다. 무예청 무관들이 '門'자 모양으로 에워싸서(作門) 어가 주위를 호위하는 모습은 영조의 <친영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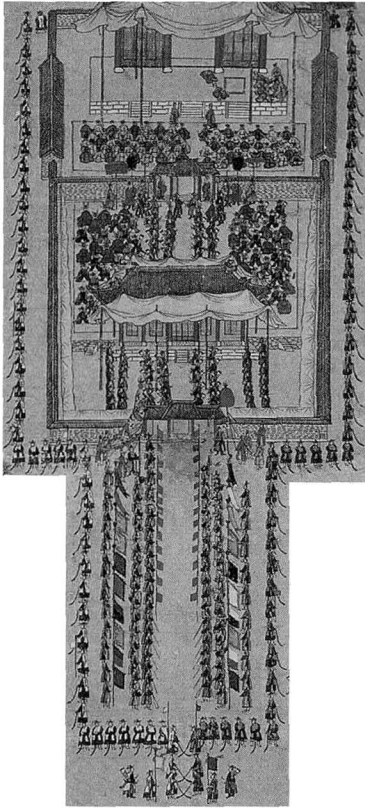
<정리의궤 반차도>의 행렬은 왕의 거동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왕은 융복을 입고 말을 탔으며 시위·호종하는 관원들도 모두 戰服이나 융복 차림으로 참가하여 군대 행렬처럼 편성되었다. 이러한 군사적 대오는 정조가 평상시의 능행에서 배종 군사들에게 시행하던 군사훈련이란 측면이 강조된 편성이다.⁵⁷ 행렬 지휘용 招搖旗와 御前 大旗幟 등 군영의 깃발을 어가 앞에 동원한



도 12 어가 주위의 門 모양 시위 모습, <정리의궤 반차도> 32~36면

57 김문식, 「18세 후반 正祖 陵幸의 意義」, 『韓國學報』88(일지사, 1997), pp. 57~62.

58 招搖旗와 御前 大旗幟는 1778년부터 어가 앞에 배치한 군대의 形名이다. 沈象奎 共編,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만기요람』Ⅱ(민족문화추진회, 1971), p. 222.



도 13 어가 주위의 門 모양 시위 모습.
〈정리의궤 반차도〉 32~36면

반차도〉에서는 보이지 않던 부분이다(도 12). 작문 호위는 標信을 지니지 않은 이들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정조대 어가 시위에서 특히 강조되어 당시 제작된 《華城陵行圖屏》에서도 왕이 친림한 곳마다 적극적으로 표현되었다(도 13).

〈정리의궤 반차도〉는 혜경궁을 극진히 모시고 거동하는 위용 넘치는 왕의 행렬을 담아낸 반차도로 그림을 이어붙이면 10미터가 넘는 장대한 행렬도가 된다. 실제 행렬에는 연인원 6,800여명과 1,000필 이상의 말이 동원되었지만 그림에는 1,490여명의 사람과 520필 정도의 말이 등장한다.⁵⁹ 기존 의궤 반차도에서는 볼 수 없던 이 위용 넘치는 거동 행렬도는 판각으로 100건 이상 복제되어 참여 관원과 내외빈에게 반포되었다. 반차도를 판각하는 관행은 19세기 의궤로 계승되지 않지만 왕의 성대한 행렬을 상징하는 기념물로서 필사되거나 〈行幸圖〉를 그릴 때 범본 역할을 하게 된다.⁶⁰

IV. 18세기 반차도의 양식적 특징

18세기에는 왕실의 다양한 의식에서 반차도가 제작되어 지침으로 활용되면서 의식의 예모가 한층 잘 갖춰졌다. 이 시기 내입 반차도로 추정되는 예들과 의궤 반차도를 통해 인각채색법이 일반화하고 인각기술이 발전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18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화면구성에서 생겨나는 변화들을 검토함으로써 18세기 반차도의 표현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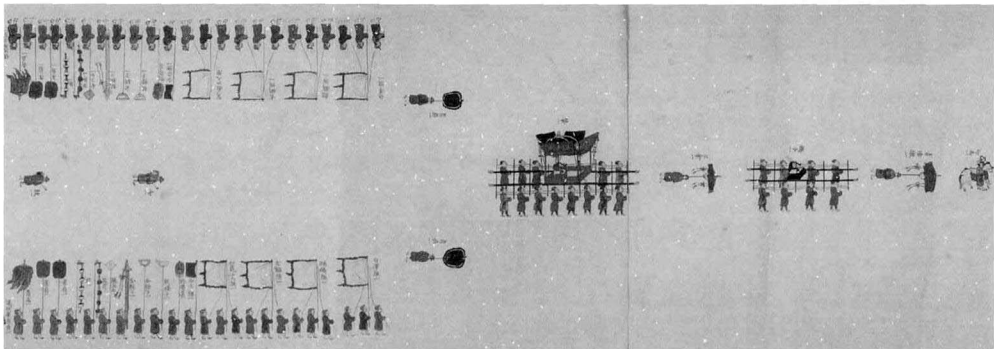
⁵⁹ 『園幸乙卯整理儀軌』卷二「啓辭」乙卯閏二月三日: 수원시, 『園幸乙卯整理儀軌譯註』(1996), p. 221.

⁶⁰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석진 작 〈行幸圖〉(간송미술관은 〈정리의궤반차도〉를 범본으로 삼은 것이다. 도판은 『澗松文華』78(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10), pp. 30~31 참조.

1. 인각채색법의 일반화

1) 내입 반차도와 인각채색법

드물게도 이 시기 내입 반차도로 추정되는 2종의 반차도가 있어 그 제작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英祖王世弟冊禮時班次圖>와 규장각 소장 <華城園幸班次圖>(奎 16031)가 그것이다. <영조왕세제책례시반차도>는 두루마리로 된 긴 행렬도로, 1721년 영조가 왕세제로 책봉될 때의 내입 어람용 반차도로 추정된다(도 14).⁶¹ 도감에서 제작한 왕세제의 의장과 연여를 앞세우고 교명·죽책·옥인을 요여와 채여에 각각 싣고 대궐로 오는 행렬을 그린 것인데, 입체형 연에다 휘장과 流蘇, 落瓔, 龍頭는 물론 왕세제 연 내부의 交椅까지 정교하게 필사하였으며 적·청·황·흑 등의 채색도 선명하다. 개방형 연은 1710년 작 <崇政殿進宴圖>와 같은 궁중행사도에서 묘사하던 방식을 따른 것이다.⁶² 그 외 요여와 채여는 측면관으로 묘사하였지만 동시기 어람용으로 제작된 『숙종국장도감의궤』(1721) <발인반차도>에서처럼 세부 문양을 정교하게 묘사하였다.⁶³ 이 <반차도>는 인각채색법으로 제작하면서 분상용 『숙종국장도감의궤』 <발인반차도>의 상을 활용하였다(표 3). 즉 내입 반차도 제작을 위한 인각용 목판을 따로 요청하지 않고 동시기 의



도 14 <영조왕세제책례시반차도>(부분), 1721, 卷, 전체 39,5×650cm, 국립고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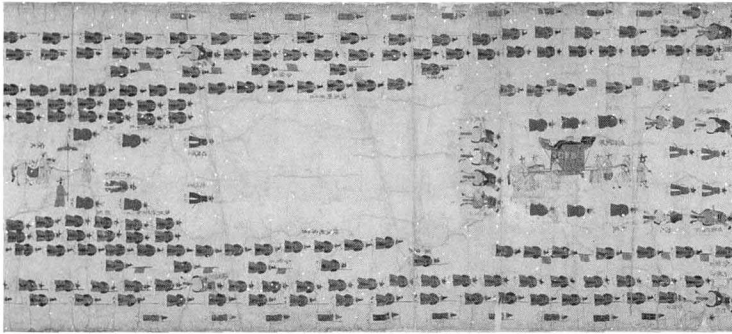
61 『조선왕실의 가마』(국립고궁박물관, 2006), p. 8.

62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I(국립중앙박물관, 2010), p. 14의 도 2 참조.

63 『145년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국립중앙박물관, 2011), p. 206 참조.

표 3 <영조왕세제책례시반차도>의 인각상과 연, 채여 비교, 1721

<p>『숙종국장도감의궤』 <발인반차도>, 1721, 규장각</p>	<p>『영조왕세제책례도감의궤』 <반차도>, 1721, 규장각</p>



도 15 <화성원행반차도> 중 자궁가교와 왕의 座馬 부분, 1795, 卷, 전체 366×1536cm, 규장각

보듯 17세기 표현형식대로 제작되었다.

한편, 규장각 소장 <화성원행반차도>는 15미터가 넘는 긴 두루마리로 1795년 화성 원행 당시의 내입 반차도로 추정된다. 의궤 반차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던 복합시점을 쓰되 가마류는 측면관으로, 나머지 상은 모두 후면관으로 묘사하였다(도 15). 인각으로 찍은 상에 기마 관원과 장수의 복색과 관모, 手旗와 각종 기치 및 화염각의 색깔을 각각 달리 설채하였고 중앙 열의 水

궤에서 사용한 인각상을 활용한 것이다.⁶⁴ 어람용 『숙종 국장도감의궤』 <발인반차도>에서처럼 초본을 활용하여 필사하지 않고 인각을 쓴 것은 내입 반차도가 보존용이 아니고 해당 의식을 위해 제작된 실용화였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어람을 위해 채색과 가마 묘사 방식, 정교함 등에서 완성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의식 후 의궤에 수록될 때는 분사용 『영조왕세제책례도감의궤』 <반차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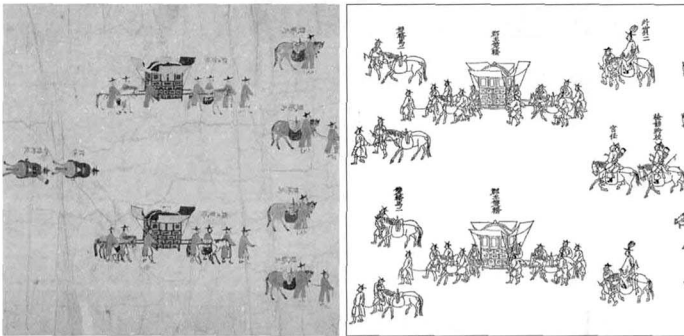
⁶⁴ 내입 반차도 제작을 위한 인각용 목판 요청은 1744년 사도세자 가례 이후의 의궤에서 확인된다. 『思悼世子嘉禮都監儀軌』(奎13109), p. 334. “本房所掌 內入及草班次圖起畫時 刻本次 朴檀木半半條 急速進排事”; 『正祖孝懿王后嘉禮廳儀軌』 下(奎13114-2), p. 76. “內入班次圖起畫時 刻本次 朴檀木半半條 進排事”; 『莊獻世子永祐園遷奉都監儀軌』 4, pp. 45~46; 박소동 역, 앞의 책, p. 106.

표 4 두 반차도의 주요 행렬 및 인물 조형 비교

	〈화성원행반차도〉, 1795	〈정리의궐 반차도〉, 1797
보행 및 기마상		
수라 가자		
자궁 가교		
御座馬		

刺架子만 손으로 필사하였다(표 4). 이 반차도를 〈정리의궐 반차도〉와 비교하면 後尾 62~63면 부분이 결락되어 있는데 실제 의식에서 지침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행렬은 규장각 소장본에 없던 郡主雙轎 뒤의 외빈 둘이 〈정리의궐 반차도〉(38면)에 있고, 指路旗를 高招旗(5면)로, 內吹鼓手를 鼓(25면)로 표기하였으며, 大砲-認旗-鼓手の 순서가 認旗-鼓手-大砲(52면)로 되어 있다(도 16). 군주쌍교 뒤의 외빈은 누락된 것이며 대포수의 위치도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외는 서로 통용

되는 표현으로 표기만 달라졌다. 의식 전에 제작된 규장각 소장본의 누락된 부분, 잘못된 순서, 명칭 문제 등을 수정하여 〈정리의궐 반차도〉가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도 16 〈화성원행반차도〉와 〈정리의궐 반차도〉의 외빈 행렬 비교

2) 인각상의 다양화와 인각기술의 향상

내입 및 분상용 의궤 반차도에서 인각채색법을 두루 활용하면서 인각기술도 향상되어 나

표 5 <친영거동반차도>의 다양한 인각상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1759, 규장각

좌측면 보행상	
후면 보행상	
측면 기마상	
후면 기마상	

갔다. 1759년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친영거동반차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좌향 측면 보행상은 총 9종(반대 열의 상까지 계산하면 더 많다), 후면 보행상 5종, 측면 기마상 6종, 후면 기마상 4종 등이 확인된다(표 5). 이 상들은 손이나 이목구비가 표현되고 복식의 모양새, 의례에서의 비중이나 지위를 감안하여 크기를 달리하였다. 이렇듯 인물상들을 다양화함으로써 두셋의 인각으로 판에 박은 듯하던 17세기 반차도에 비해 훨씬 다채로운 화면이 연출되었다.

더불어 가마도 인각으로 새겼으며 가마와 가마꾼을 세트로 새겨 찍는 기법도 자주 시도되었다. 1759년 <친영거동반차도>에서는 요여와 채여류 같은 소형 가마, 왕의 副輦과 왕비 輦의 중형 가마, 왕의 대형 가마를 세 종류의 인각으로 찍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6). 특히 영조의 대련은 가마와 가마꾼 16인을 세트로 인각하여 어람용 의궤와 분상용 의궤에 동일하게 사

표 6 <친영거동반차도>의 가마 인각,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1759, 규장각/외규장각

소형 가마(요여)	중형 가마(부련)	대련(분상용)	대련(어람용)

표 7 연·가마꾼 세트와 요여·가마꾼 세트 인각, 『정조효의왕후가례청의궤』(반차도), 1762, 규장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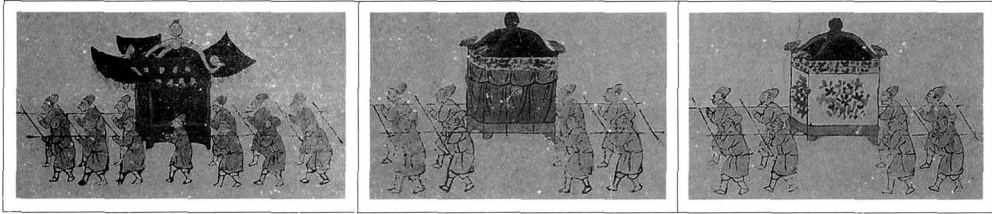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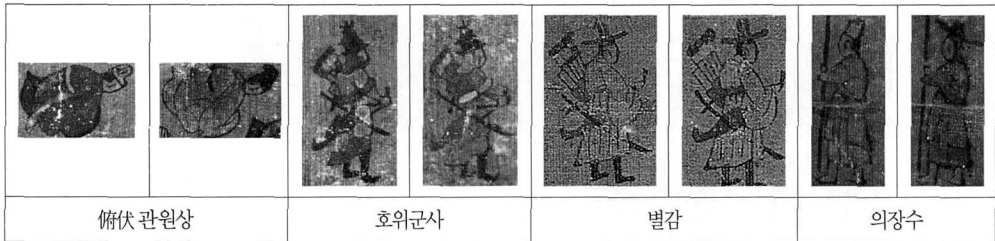


표 8 《文孝世子冊禮圖屏》의 인각상들, 1784, 서울대학교박물관



용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어람용은 언뜻 보면 필사한 것 같지만 가마의 형태가 동일하고 가마꾼 의복의 주름선이 동일하여 세트임을 알 수 있다. 어람용에서는 정교하게 윤곽선을 보필하고 선명한 채색을 한 반면 분상용에서는 채색만 더하여 인각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가마와 가마꾼의 세트 인각 표현은 1762년 정조 가례시의 연과 가마꾼, 요여·채여와 가마꾼 세트 표현 등에서도 확인된다(표 7). 그리고 <친영거동반차도>에 쓰인 인각상 중 측면 보행 및 기마상, 후면 보행상 등 몇몇 상은 같은 해에 있었던 『인원왕후부묘도감의궤』(반차도), 『정조왕세손 책례도감의궤』(반차도)에서도 그대로 활용되어 도화서 내 업무 공조체계를 보여준다. 이들의례는 거의 한 달 간격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동일 인각들을 쓴 것이다.

인각채색법은 반차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궁중행사도에서도 활용되고 있어 당시 화원들의 제작 관행의 일면을 알 수 있다. 1763년 作 《耆英閣詩帖》에서는 관원들을 5종의 인각상으로 표현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⁶⁵ 또한 정조대 《文孝世子冊禮圖屏》에서도 인물들을 인각채색법으로 표현하였다(표 8). 이 병풍에서는 밑그림을 그리는 대신 인각상으로 찍고 윤곽선을 보필하거나 관모나 복식의 세부 장식과 지물 등을 추가로 그린 뒤 설채하여 완성된 상을 만들었다. <표 8>에서 俯伏 관원상의 전체 윤곽과 귀 표현에서 동일 인각의 흔적이 보이는데, 왼쪽의

⁶⁵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耆英閣詩帖》(1763)에 대해서는 박정혜, 앞의 책, pp. 184~18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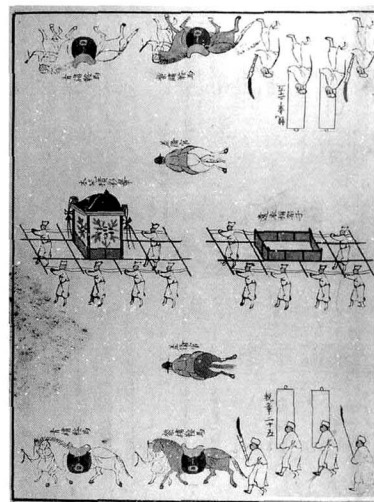
금관조복상에서는 붉은 색 진채로 설채하여 의복선의 흔적이 희미하지만 오른쪽 관원의 관복에서는 인각 의습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또한 담채를 주로 쓴 호위군사나 별감, 의장수 상에서는 인각선의 흔적이 비교적 뚜렷이 드러나 있고 옷자락 뒷부분에 인각으로 찍으면서 몽친 먹 자국이 남아 있다.

이러한 인각 활용상은 화원 업무량의 증가와 제작 역량의 향상이란 면에서 살필 수 있다. 영조는 즉위 초반부터 대궐에 화원들을 대령시켜 宮中繪事와 관련한 업무들을 처리케 하였고, 특히 1748년 영정모사도감 이래 待令畫員에게 관직을 수여하는 등 보상을 하면서 화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나갔다.⁶⁶ 이를 差備待令畫員制로 계승하여 화원들의 역량을 더욱 향상시킨 결과물이 정조대의 <정리의궐 반차도>일 것이다.⁶⁷

2. 사실적인 화면 구성

18세기 반차도는 17세기 중엽 이래로 확립된 복합 시점의 삼단구도와 인각채색법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17세기와는 다른 표현상의 특징을 보인다. 주로 중심 열의 가마 표현을 둘러싸고 화면에 공간적인 깊이감이 생기면서 이차원적 평면도와 같은 도식 수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한 인물상을 다양화하면서 동세를 가미하여 화면에 움직임이 생기고 각 요소들을 화면 안에 포치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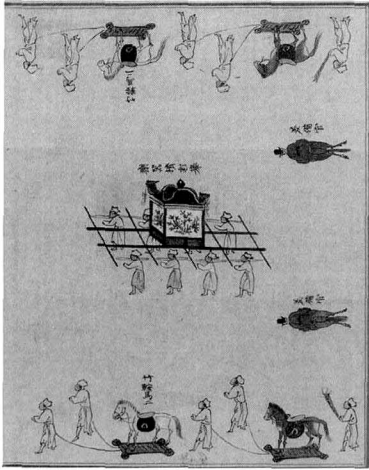
의궤 반차도의 구도에서 변화가 보이는 것은 숙종 집권 후반 무렵이다. 1718년 『단의빈예장도감의궤』 <발인반차도>에서는 중심 열의 가마채를 평행사선구도로 배치하고 가마를 모두 입체형으로 묘사하여 가마 표현 방식이 바뀌었다(도 17). 가마를 묘사하는 데서는 원근법을 인식한 깊이감도 약하게나마 드러나 있으며 가마꾼도 가마채의 사선식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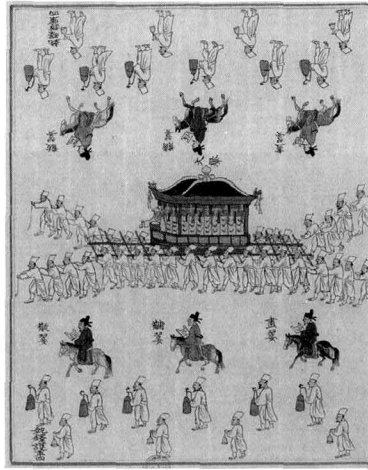
도 17 『단의빈예장도감의궤』 <발인반차도>
11면, 1718, 규장각

⁶⁶ 『승정원일기』 646책 1727년(영조 3) 9월 26일(己卯). “又啓曰 嘉禮都監郎廳 以都提調意來言 敎命安寶時 都監知委 禮曹 補劃畫員 例爲待令矣”; 『승정원일기』 1071책 1751년(영조 27) 7월 10일(甲戌). “又傳于南泰齊曰 御容模寫都監 待令畫員調用事 曾已下敎矣”; 『승정원일기』 1154책 1758년(영조 34) 3월 25일(辛亥). “(禮曹判書李)益烜曰 至於畫員 亦有外方軍官窠 次第差去 故頗勝於前矣”

⁶⁷ 정조대의 差備待令畫員制에 대해서는 강관식, 『조선 후기 궁중화원 연구』 상·하(돌베개, 2001) 참조.



도 18 『현빈예장도감의궤』 <발인반차도>
10면, 1752, 외규장각



도 19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
<발인반차도> 21면, 1752, 외규장각

치에 맞추어 사선으로 배열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좌우 바깥 열의 상들에서는 3/4분면으로 묘사한 마부와 청수안마의 세트 표현, 만장과 捧炬를 든 인물에서 動勢가 뚜렷이 드러나 있다. 이들 바깥 열의 인물과 중앙 열 가마꾼의 크기를 달리 표현함으로써 중앙 열과 바깥 열에 층차감을 주어 화면에 깊이감이 생겼다. 더욱이 이 반차도에서는 솜씨 좋은 각수를 동원하여 말과 인물을 섬세하게 새겨내어 분상용 의궤 반차도로서는 드문 수준을 보여준다.⁶⁸

『단의빈예장도감의궤』 <발인반차도>에서 보이는 화면 구성의 변화는 공간 표현에 대한 사실적인 태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18세기 전반에 수용된 서양 화법의 영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본 <영조왕세제책례시반차도>의 입체형 가마 묘사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보이며 1752년 『현빈예장도감의궤』와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의 <발인반차도>에서 보듯 필사 위주로 공들여 제작된 어람용 의궤 반차도를 중심으로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도 18, 19).

한편, 대부분의 상을 인각으로 제작하던 분상용 의궤에서는 단의빈 <발인반차도>에서와 같은 동세 넘치는 상들을 다양하게 제작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중심 열 가마 표현을 중심으로 변화가 확인된다. 가마의 입체형 묘사가 분상용 의궤 반차도에 나타나는 것은 1748년 『숙종영정모사도감의궤』 <반차도>(도 7)와 1751년 『의소세손책례도감의궤』 <반차도> 무렵이

⁶⁸ 『端敬新禮葬都監儀軌』上(奎13573), p. 240. “都監儀軌修正時班次圖起畫雕刻次善手刻手匠人一名當該色吏領付都監事”

다.⁶⁹ 이후 가마의 입체 표현, 가마채의 평행사선구도 배치, 가마꾼의 사선 포치 등이 일반적인 형식으로 자리잡은 결과, 행렬 앞쪽에서 비스듬히 부감해낸 시점이 입체적인 가마와 조화를 이루어 시각적인 합리성이 확보되게 되었다.⁷⁰ 앞서 1759년 <친영거동반차도>에서 본 동세가 가미된 다양한 인각상은 화면에서 각 인물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달리 조형화하려는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행렬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 의지를 보여준다.

<정리의궤 반차도>는 주위 배경을 생략하고 행렬마다 명칭과 숫자를 표기해놓은 것은 의궤 반차도의 표현 형식과 같다. 하지만 그 외에는 모든 면에서 기존 의궤 반차도의 도식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⁷¹ 의궤 반차도의 복합시점과는 달리 부감시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움직이는 행렬을 사실적으로 포착하려 한 점이 두드러진다. 사람과 말의 조형과 비례, 상들 간의 상호 관계가 적정하고, 각기 움직이는 동작 묘사가 자연스럽다. 원행에 앞서 내입되었을 규장각 소장 <화성원행반차도>가 이렇듯 사실적인 행렬도로 변모된 것은, 일차적으로 기존 의궤의 격식을 따를 필요 없이 화성 원행의 의의를 후세에 증명할 수 있도록 하라 한 정조의 뜻 때문이었다(표 4 참조).⁷² 그리고 1750년 이래 영조의 후원과 정조대 제도적 밑받침 속에서 드높여간 화원들의 역량이 있었으며, 기록화와 풍속화 등 다양한 부문의 회화가 발달했던 당시 화단의 동향도 한 몫하였던 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반차도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도감 소관 업무의 하나로 의식 전에 제작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고 실제 의식에 활용된 내입 반차도와 의식 후 후대의 상고 및 보존용으로 제작된 의궤 반차도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반차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제작량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17세기 중엽부터 인각채색법을 도입하면서 정립되는 표현양식을 정리하였다.

18세기에 예제가 정비되고 왕실 의례에 예모가 갖춰지는 과정에서 국왕의 의지로 새로운

⁶⁹ 『懿昭世孫册禮都監儀軌』(奎13199) 참조.

⁷⁰ 영조대 후반 궁중행사도에서 보이는 공간표현의 변화에 대해서는 강관식, 『眞景時代 後期 畫員畫의 視覺的 事實性』, 『潤松文華』 49(1995), pp. 54~57 참조.

⁷¹ 박은순, 앞의 논문, pp. 285~286; 정병모, 『園幸乙卯整理儀軌』의 板畫史的 研究, 『文化財』 제22호(문화재관리국, 1989), pp. 113~115.

⁷²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二 「啓辭」 乙卯 閏二月 十九日; 수원시, 앞의 책, pp. 231~232.

반차도들이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영조는 노부제도를 정비하고 예전을 정비하는 1740년 이후 수가 및 친영 거동 반차도와 <의장도>를 탄생시켰다. 이는 왕실 의례를 예법대로 치러 내어 예모를 갖추고 의례의 중심에 선 자신을 부각하려는 영조의 의지로 제작된 것이었다. 영조대에 일부 행렬로 표현되기 시작한 왕의 거동 반차도는 정조대의 <정리의궤 반차도>에 이르러 독자적인 행렬도로서 성립하였다. <정리의궤 반차도>는 18세기 왕의 성업과 원행의 위용을 집약해낸 기록화로서, 몇 건 한정 제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판각으로 100건 이상 복제되었다. 정조는 이를 반포함으로써 관련 부서와 사고에 상고의 대상으로만 秘藏되던 의궤 반차도가 왕의 성대한 원행을 상징하는 행렬도로서 일반인에게 열람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도감에서 실무용으로 쓰던 반차도를 분아 반차도로 정식화하였다.

18세기 반차도 제작에는 인각채색법이 널리 활용되며, 어람용에서는 필사와 인각을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증엽을 전후하여 중앙열의 가마를 중심으로 사실적인 공간 묘사가 이루어지고 화면을 다채롭게 변모시키며 <정리의궤 반차도>에서는 의궤 반차도와는 다른 형식의 행렬도를 탄생시켰다. 제작 면에서는 세트 인각과 동일 인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도화서 내 업무 관행과 궁중회화에서도 인각을 활용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표현과 제작기량 양면의 발전적인 면모 이면에는 강력한 왕권에 의한 후원이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key words) _ 의궤(*Uigwe*, The Documentation of Joseon Court Rites), 반차도(*Banchado*, Illustrated Guide of Procession during Royal Ceremonies and Rites), 內入 班次圖(*Naeip Banchado*, Presented *Banchado* for the King's Inspection and Approval prior to Royal Ceremonies), 의궤 반차도(*Uigwe Banchado*, *Banchado* Included in *Uigwe*), 分兒 班次圖(*Buna Banchado*, Authorized *Banchado* for a Training Manual), 화원(*Hwawon*, Court Painters of the Joseon Dynasty), 인각채색법(Woodcarving & Painting Technique), 친영거동반차도(*Banchado* of Royal Palanquin Wedding Procession), 원행을묘정리의궤 반차도(*Uigwe Banchado* of King Jeongjo's 1795 Visit to His Father's Tomb), 왕실 의례(Court Rites)

■ 투고일 2011년 11월 25일 | 심사개시일 2011년 12월 3일 | 심사완료일 2012년 1월 3일 ■

참고문헌

1. 사료 및 의궤류

- 『세종실록』, 『단종실록』, 『성종실록』, 『선조실록』,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정조대 기록.
『오례의 Ⅱ—세종장현대왕실록』 2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3.
『國朝五禮儀』 3·4·5, 법제처, 1982.
『昭顯世子禮葬都監儀軌』(1645, 奎13918, 파2572).
『仁祖國葬都監儀軌』(1649, 奎13521).
『孝宗國葬都監儀軌』上·下(1659, 奎13527).
『孝宗祔廟都監儀軌』(1661, 奎13530).
『仁宣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674, 奎13535).
『莊烈王后國葬都監儀軌』上(1688, 파2561)
『端懿嬪禮葬都監儀軌』上·下(1718, 奎13573·13572).
『肅宗國葬都監儀軌』上·下(1721, 奎13548).
『英祖王世弟冊禮都監儀軌』(1721, 奎13099).
『景宗國葬都監儀軌』上·下(1725, 奎13566).
『思悼世子嘉禮都監儀軌』(1744, 奎13109).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1747, 奎13288).
『肅宗景純貞模寫都監儀軌』(1748, 奎13997).
『懿昭世孫冊禮都監儀軌』(1751, 奎13199).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1751, 奎13290).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上·下(1752, 奎13292).
『賢嬪禮葬都監儀軌』(1752, 파2681)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上·下(1754, 奎13294).
『仁元王后國葬都監儀軌』上·下(1757, 奎13557·13558).
『仁元王后祔廟都監儀軌』(1759, 奎13561)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1759, 奎13102, 파2535); 영인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박소동 역, 『국역 가례
도감의궤』, 민족문화추진회, 1997.

- 『正祖王世子孫冊禮都監儀軌』(1759, 奎13113)
- 『正祖孝懿王后嘉禮廳儀軌』上·下(1762, 奎13114).
- 『國朝始祖位版造成都監儀軌』(1771, 奎14250).
- 『春官通考』卷50·67; 『春官通考』中·下,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7.
- 『貞純王后莊獻世子惠嬪尊號都監儀軌』(1783, 奎13311).
- 『國朝寶鑑監印廳儀軌』(1783, 奎14189)
- 『英祖貞聖王后貞純王后莊獻世子惠嬪尊號都監儀軌』上·下(1784, 奎13297).
- 『宮園儀』(1785, 장서각, K2-2433)
- 『貞純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1787, 奎13314).
- 『莊獻世子永祐園遷奉都監儀軌』(1789, 奎13624).
- 『園幸定例』(奎12209).
- 《儀仗班次圖》(奎貴9944).
- 『貞純王后莊獻世子惠嬪尊號都監儀軌』上·下(1795, 奎13316).
- 『園幸乙卯整理儀軌』(1797, 奎14532); 영인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수원시, 『園幸乙卯整理儀軌譯註』, 1996
-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1802, 장서각, 귀K2-2595).
- 沈象奎 共編,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만기요람』 II, 민족문화추진회, 1971.
- 외규장각 소장 의궤: 국가기록유산사이트(<http://www.memorykorea.go.kr>).

2. 도록

- 『澗松文華』78,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10.
- 『규장각 명품도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0.
- 『145년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국립중앙박물관, 2011.
-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I, 국립중앙박물관, 2010.
- 『조선왕실의 가마』, 국립고궁박물관, 2006.

3. 저서 및 해제류

- 강관식, 『조선 후기 궁중화원 연구』 상·하, 돌베개, 2001.
-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 『규장각 소장 儀軌 종합목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 유송옥, 『朝鮮王朝 宮中儀軌服飾』, 수학사, 1991.
-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 이범직, 『朝鮮時代 禮學研究』, 국학자료원, 2004.
- 이성미, 『가례도감의궤와 미술사』, 소와당, 2008.
- 鄭道傳, 『三峰集』; 『국역 삼봉집』Ⅱ, 민족문화추진회, 1977.
- 한영우, 『조선왕조 儀軌』, 일지사, 2005.

4. 논문

- 강관식, 「眞景時代 後期 畫員畫의 視覺的 事實性」, 『潤松文華』49(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95), pp. 49~108.
- 김문식, 「18세 후반 正祖 陵幸의 意義」, 『韓國學報』88, 일지사, 1997, pp. 37~65.
- _____, 「조선 왕실의 친영례 연구」, 권오영 외, 『조선 왕실의 가례』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pp. 99~136.
- 김지영, 「조선후기 儀軌 班次圖의 기초적 연구」, 『한국학보』118, 일지사, 2005, pp. 56~100.
- _____, 「英祖代 眞殿政策과 『肅宗景御眞模寫都監儀軌』」,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2(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pp. 542~558.
- _____, 「조선 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의궤 반차도와 거동 기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 박은순, 「朝鮮時代 王世子冊禮儀軌 班次圖 研究」, 『韓國文化』1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3, pp. 553~612.
- _____, 「조선후기 의궤의 판화도식」, 『국학연구』제6집, 한국국학진흥원, 2005, 6, pp. 249~308.
- 박정혜, 「朝鮮時代 冊禮都監儀軌의 繪畫史의 研究」, 『韓國文化』14, pp. 521~551.
- _____,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員」, 『미술사연구』제9호, 미술사연구회, 1995, pp. 203~290.
- 손계영, 「조선시대 古文書에 사용된 종이 분석」, 『기록관리학회지』제5권 제1호(한국기록관리학회, 2005, 6), pp. 79~105.
- 이성미, 「藏書閣所藏 朝鮮王朝 嘉禮都監儀軌의 美術史의 考察」, 李成美·姜信沆·劉頌玉, 『藏書閣所藏 嘉禮都監儀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 33~116.
- _____, 「朝鮮王朝 御眞關係 都監儀軌」, 李成美·劉頌玉·姜信沆, 『朝鮮時代 御眞關係 都監儀軌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p. 1~136.
- Yi Söng-mi, “Euigwe and the Documentation of Joseon Court Ritual Life”, *Archives of Asian Art*, vol. 58(2008), pp. 113~133.
- 장병모, 「園幸乙卯整理儀軌의 板畫史의 研究」, 『文化財』제22호, 문화재관리국, 1989, pp. 96~121.

국문초록

18세기는 국왕 주도하에 왕실 의례의 정비와 의궤를 통한 정리작업이 활발히 진행된 시기이다. 또한 새로운 반차도들이 등장하고 표현양식 면에서도 뚜렷한 특징을 보여 왕실 의례와 반차도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반차도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18세기 이전의 반차도를 개괄하였다. 그리하여 반차도가 행렬의 차례를 시각화한 실용화로서, 의식 전에 제작되어 국왕의 재가와 실무에 쓰인 내입 반차도와 의식 후 후대의 相考와 보존을 위해 제작된 의궤 반차도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17세기 중엽부터 좌향하여 나아가는 중앙 열과 중앙 열을 향해 顛倒된 바깥 열을 한 화면에 복합시점으로 묘사하는 삼단구도가 정착하며, 반차도의 수준을 높이고 제작량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印刻彩色法을 도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기법은 나무에 도장처럼 양각상을 새겨서 찍고 모자와 持物 등을 그려서 상을 완성한 후 채색을 가하는 방식이다.

18세기에 새로 등장하는 반차도들은 왕실 의례에 예모를 갖추고 그 절차를 관리하려는 국왕의 의지로 제작된 것이다. 영조는 禮典을 재정비하고 각종 정례들을 마련하는 1740년 이후 수가 및 친영 거동 반차도와 <의장도>를 탄생시켰다. 이는 왕실 의례의 엄숙한 집행과 함께 의례의 중심에 선 국왕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영조대의 거동 반차도는 정조대의 <정리의궤 반차도>에 이르러 독자적인 행렬도로 발전하였다. <정리의궤 반차도>는 18세기 성대한 왕실 의례와 원행의 威容을 집약해낸 기록화로서, 몇 건 한정 제작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판각으로 다량 복제되었다. 정조는 이를 반포함으로써 관련 부서와 사고에 상고의 대상으로만 秘藏되던 의궤 반차도가 왕의 盛業을 상징하는 행렬도로서 일반인에게 열람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내입 반차도 중 실무용 반차도를 분아 반차도라는 명칭으로 定式化하는 관행을 마련하였다.

18세기 반차도의 제작에는 인각채색법이 널리 활용되며, 어람용에서는 고급 종이와 채색, 필선을 더하여 실무용과 차등을 두었다. 또한 중엽을 전후하여 중앙 열의 가마를 중심으로 사실적인 공간 묘사가 이루어지고 화면을 다채롭게 변모시키며 <정리의궤 반차도>에 이르러 비약적인 발전상을 보인다. 제작 면에서는 세트 인각과 동일 인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도화서 내 업무관행과 궁중회화에서도 인각을 활용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표현과 제작기량 양면의 발전적인 면모 이면에는 강력한 왕권에 의한 후원이 있었던 것이다.

Abstract

A Study of 18th-century *Banchado*

Je Song-hee *

Banchado are paintings depicting a procession in the Court Rites, featuring such details as the cortege of courtiers, royal guards in parade, the palanquin and ceremonial flags and banners. Joseon's royal house had a custom of drawing up a *Banchado* ahead of an important Court Rite to plan and visualize the procession. The *Banchado*, once approved by the king, was used as the actual manual for a procession in the Court Rites. After the event was over, they added the *Banchado* in *Uigwe*, the documentation of Court Rites, for future reference. *Banchado* had a composition which precisely indicated the alignment of participants of the procession, organizing it usually into three sections: central, left and right rows. For recurrently appearing characters, the images were stamped using a carved wooden stamp, and details like hats and flags were drawn in addition. Afterward colouring work was followed.

The 18th-century was a time when the Court Rites were standardized under the king's initiative. During this process, a new genre of painting, *Banchado*, was born, to comply with the courtesy. *Chinyeong geodung banchado* from King Yeongjo's reign and *Wonhaeng eulmyojeongniugwe banchado* from King Jeongjo's reign are two of the best known examples. *Wonhaeng eulmyojeongniugwe banchado*, for instance, has shaped the popular perception of 18th-century magnificent Court Rites. During the 18th century, *Banchado* were

* Ph.D., Academy of Korean Studies

frequently produced, using the combination of stamping and painting, *Ingakchaesaekbeop*. Toward the middle of this century, the spatial depiction, especially around the middle row with the palanquin, became more realistic. In addition, carved stamps used in *Banchado*, for the royal palanquin and palanquin carriers, became also used in court paintings.